

민족주의로 재구성된 난징대학살의 기억*

— 엔저링(嚴歌苓)의 《진링의 13소녀(金陵十三釵)》에 대한 일고찰

손 주 연**

<목 차>

1. 들어가며
2. 민족 공동체로 거듭나는 성당 내 구성원
3. 충돌과 융합으로 구성되는 민족 정체성
4. 민족의 문화적 재현물로서의 '순수한' 여성
5. 나오며

1. 들어가며

엔저링(嚴歌苓)은 2011년에 발표한 작품 《진링의 13소녀(金陵十三釵)》의 창작 배경을 다룬 한 글에서, “《진링의 13소녀》는 내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은 아니지만 쓰지 않을 수 없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¹⁾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작품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원동력은 민족적 자아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힌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엔저링은 젊은 시절부터 미국에서 생활했고, 미국에서의 교육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했는데²⁾ 이 글에서 그녀는 농담 섞인 어조로 이처럼 해외에 있다

* 본 논문은 2019년 11월 9일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 “중국어문학 연구의 원형, 변화, 융복합”에서 발표하였던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강사(keepfree@inha.ac.kr)

1) 嚴歌苓, <悲慘而絢爛的犧牲>, 《當代(長篇小說選刊)》 2011年04期, 第69頁.

2) 엔저링의 삶과 창작 상의 특징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 박남

보면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생겨 '민족주의자'가 되기 마련이라는 언급을 한다. 이런 '민족주의자' 엔저링에게 난징대학살(南京大屠殺)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분명 매력이 넘치는 소재로 다가왔을 것이다.

2005년 《진링의 13소녀》는 중편으로 발표되었다. 이후 영화감독 장이머우(張藝謀)가 이미 다른 이에게 팔린 판권을 사들이며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자 엔저링은 이를 장편으로 개작하게 된다.³⁾ 난징대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자행한 가장 큰 규모의 학살로 이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는 수십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엔저링은 미국에서 접했던 난징대학살 60주년 추모 행사에서 이 사건의 처참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반드시 작품으로 써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⁴⁾ 이 작품 창작 동기에 대해 논하며 엔저링이 '강간(rape)'이라는 개념으로 난징대학살에 접근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엔저링은 난징대학살을 국제적으로는 'The Rape of Nanking'으로 지칭하는데, 이는 난징대학살이 단지 '신체적 소멸'에 그치지 않고 가장 은밀하고 약한 곳까지 빼앗기고 모욕당한 '국가적 치욕(國恥)'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지적한다.⁵⁾

엔저링의 이러한 언급을 통해 독자들은 엔저링이 기녀와 소녀들을 중심으로 난징대학살을 재구성한 이유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엔저링은 난징대학살에서 희생된 여성들에게 숨결을 불어넣고 그들의 인생사를 독자들 앞에 펼

용·이천주, <엔저링(嚴歌苓) 소설 《진링의 13소녀(金陵十三釵)》 속에 나타난 역사의 기억과 하위주체 연구>, 《한중언어문화연구》 제34집, 2014; 박남용, <엔저링(嚴歌苓)의 《죄수 루엔스(陸犯焉識)》에 나타난 역사적 트라우마와 기억의 서사>, 《세계문학비교연구》 제54집, 2016; 기영, <엔저링(嚴歌苓) 장편소설 《죄수 루엔스(陸犯焉識)》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손주연, <기억과 망각의 서사: 엔저링(嚴歌苓) 소설 《방화(芳華)》가 문화대혁명을 서술하는 방식>, 《중국소설논총》 제58집, 2019.

- 3) 영화 <진링의 13소녀(The Followers of War)>은 2011년에 개봉되었다. 개봉 당시 할리우드 배우 크리스찬 베일(Christian Bale)이 장의사 존의 역을 맡으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진링의 13소녀》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영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영화와 소설은 인물 형상과 플롯의 전개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본고의 연구대상은 엔저링의 장편소설 《진링의 13소녀》로 한정한다.

4) 嚴歌苓, <悲慘而絢爛的犧牲>, 《當代(長篇小說選刊)》 2011年04期, 第69頁.

5) 嚴歌苓, 위의 글.

어놓음으로써 역사적 사건의 비극성을 극대화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을 하위주체로 규정하고, 타자화되었던 여성들이 시대와 역사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관점에서 《진링의 13소녀》를 분석한 것은 분명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⁶⁾ 그러나 《진링의 13소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그 서술에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양 신부들과 난징대학살을 일으킨 일본 병사들을 타자화하면서 형성되는 중국의 민족 정체성, 여학생들과 기녀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기준으로서의 성(性)적 순수성,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되는 중국 군인과 기녀들의 희생 등의 문제는 '전쟁'과 '민족적 비극'이라는 요소 앞에서 무시되고 만다. 이에 본고는 민족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소설이 난징대학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과, 여성의 희생으로 역사적 비극을 대변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보다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2. 민족 공동체로 거듭나는 성당 내 구성원

소설의 서술자는 명수취안(孟書娟)의 조카다. 서술자의 이모로 등장하는 명수취안은 난징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다. 명수취안이 찾아다니던 여성은 1937년 난징에서 이름을 날리던 명기(名妓) 자오위모(趙玉墨)였고, 일본 전범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일본 고위군관의 대규모 강간을 증언하던 자오위모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러나 자오위모는 그녀를 부르는 명수취안에게 자신은 자오위모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하며 군중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이로써 작가는 명수취안과 자오위모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며 소설을 풀어간다.

일반적으로 작가 엔저링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소설

6) 박남용·이천주, <엔저링(嚴歌苓) 소설 《진링의 13소녀(金陵十三釵)》 속에 나타난 역사의 기억과 하위주체 연구>, 《한중언어문화연구》 제34집, 2014, 348쪽.

을 창작한다. 이는 엔저링 스스로의 경험에 의거한 글쓰기이기에 소설의 플롯은 작가의 기억에 의지하며, 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소설에 접근하게 된다. 이에 작가는 소설 내에서 '실제'와 '허구' 사이의 팽팽한 긴장을 조성하며 독자들을 소설 속 허구의 세계로 인도한다.⁷⁾ 《진링의 13소녀》에서도 엔저링은 유사한 서술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주변인에 해당되는 인물의 시선(명수취안 혹은 명수취안의 조카)으로 핵심 인물들을 관찰하고 서술하는 방식, 그리고 실제로 존재했던 난징대학살을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점 모두 소설에 현실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진링의 13소녀》는 엔저링의 기존 소설들과 몇 가지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난징대학살은 엔저링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기에 소설에서 허구적 요소들이 보다 강하게 드러난다. 또한 엔저링이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작가가 '민족주의'의 감정에 근거하여 소설을 창작하였기에 엔저링의 다른 소설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민족 정체성의 요소가 보다 강조되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민족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근대 국가의 탄생과 맥을 같이 한다. 장문석은 민족주의와 관련된 논쟁들은 민족과 민족주의를 혼동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족은 크게 객관적 정의와 주관적 정의로 나뉘며, 객관적 정의는 언어, 영토, 경제생활 등을 기준으로 한 문화 공동체라 할 수 있다.⁹⁾ 현재 보

7) 기억에 의거한 엔저링의 창작 기법은 “손주연, <기억과 망각의 서사: 엔저링(嚴歌苓) 소설 《방화(芳華)》가 문화대혁명을 서술하는 방식>, 《중국소설논총》 제58집, 2019” 참고.

8) 김인중은 <민족과 민족주의 — 겔너와 스미스를 중심으로>에서 네이션(nation)과 내셔널리즘(nationalism)을 민족과 민족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국민과 국민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합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는 “개념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각 연구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전망하느냐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 일종의 사학사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본고는 이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가장 널리 쓰이는 번역어인 ‘민족’과 ‘민족주의’를 채택한다. 김인중, <민족과 민족주의 — 겔너와 스미스를 중심으로>, 《숭실사학》 제26집, 2011, 359-360쪽.

9) 장문석, 《민족주의》, 책세상, 2011, 25쪽.

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민족에 대한 정의는 주관적 정의에 해당된다. 이는 에르네스트 르낭(Ernest Renan),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앤서니 D. 스미스(Anthony D. Smith)의 민족에 대한 정의에 의지하고 있다. 르낭은 그의 유명한 연설 <민족주의란 무엇인가>에서 종족과 민족을 구분하고 있다. 그는 “순수한 종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종족 혹은 종교가 근대의 민족국가 혹은 근대 민족의 확립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영혼이며 정신적 원리”이고, “매일매일의 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구성하는 하나의 융합인 것이다.¹⁰⁾ 앤더슨은 16세기 인쇄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출판물들을 통해 주민들은 비슷한 견해를 공유하는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 거듭났으며 결국엔 자신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상상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¹¹⁾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미스는 민족 대신 ‘족류 공동체(ethnic community, 프랑스어로 *ethnie*)’의 개념을 제안한다. 그는 ‘민족’이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며 근대의 발명품도 아니라고 말한다. 광범위하고 장기지속적인 안목에서의 족류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공동체, 이데올로기, 정체성 인식”을 구성하는 “상징자원, 즉 인구의 문화단위(cultural units of population)의 축적된 유산을 구성하는 전통·기억·가치·신화·상징”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¹²⁾ 한편 민족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주의는 그 기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정체성으로서의 민족주의, 담론으로서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로 나뉘게 된다.¹³⁾

이러한 민족과 민족주의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민족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객관적 실체이기도 하며, 신화와 상징으로 구성된 근대적 창작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중국의 ‘민족’ 혹은 중화 ‘민족주의’를 접할 때,

10) 에르네스트 르낭 지음, 신행선 옮김, 《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2.

11) 베네딕트 앤더슨 지음,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2002.

12) 앤서니 D. 스미스 지음, 김인중 옮김, 《족류 상징주의와 민족주의: 문화적 접근방법》, 아카넷, 2016.

13) 장문석, 위의 책, 65-66쪽.

우리는 중국의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한 단일한 민족, 중국의 국가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국가적 기획 하의 '민족주의'를 초월할 수 있게 된다. 즉, '민족'이라는 것을 선형적으로 주어진 실체로 받아들이든 혹은 새로운 근대의 창작물로 받아들이든 '민족'은 동일한 기억과 문화, 그리고 관습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진링의 13소녀》를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을 짚어낼 수 있다.

《진링의 13소녀》는 1937년의 난징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소설의 서술은 대부분 월슨복음성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작가는 성당을 '마지막 오아시스'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당이라는 이질적 공간과 그 곳을 지키는 미국인 신부의 존재는 성당과 참혹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성당 밖의 난징을 명확히 구분해 준다.¹⁴⁾ 다시 말하면, 성당은 일제의 폭압을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공간으로 묘사된다. 신부들과 성당 안의 월슨복음여자학교의 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던 성당 내의 공동체는 기녀들과 중국 군인들이 높은 담장을 넘어 성당 안으로 피신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난다. 즉, 인종·계층·성별·나이를 뛰어넘어 성당 내의 구성원들은 난징대학살의 공포와 잔혹함을 피해 성당 안의 일시적 안전을 함께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공유된 경험과 감정을 통해 성당 내부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로 재조직되며, 성당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잉글면 신부는 자신의 권력 질서를 새로이 구축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새로이 조직된 공동체는 복합적·다원적이며 혼잡적이고 중첩적인 매우 복합적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는 점이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외부와 내부의 다양한 충돌과 갈등, 그리고 융합 속에서 중국의 종족 민족주의를 뛰어넘은 민족적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로 재조직된다.

14) "신부와 성당의 높은 담벼락은 핏물이 똑똑 떨어지는 광경과 소리를 조금은 차단해주었다. 사람의 머리가 바닥에 떨어져 가슴에서 붉은 피가 솟구칠 때만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소리를." "她還得等許久才知道好歹,知道她是個多幸運的孩子,神父和教堂的高牆為她略去多少血淋淋的圖景和聲響;人頭落地,胸膛成爲一眼紅色噴泉時原是有著獨一無二的聲響." 엔저링 지음, 김이경 옮김, 《진링의 13소녀》, 문학에디션 뽀, 2012, 24쪽.嚴歌峯,《金陵十三釵》,作家出版社,2011,第12頁.

3. 충돌과 융합으로 구성되는 민족 정체성

그렇다면 종족 민족주의를 뛰어넘은 민족적 정체성이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며, 그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프라센지트 두아라(Prasenjit Duara)의 민족관은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민족관의 다양성, 그리고 정치적 아이덴티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이한 지점들 사이에서 변화한다는 사고는, 민족주의는 관계적 아이덴티티로서 간주할 때 가장 잘 관찰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서 민족은 확실히 민족으로서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지역에서조차도 원초적 본질의 실현이 아니라 어떤 집단은 포함하고 다른 집단은(때론 폭력적으로) 배척 혹은 주변화하기 위해 고안된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예컨대 언어적 정의는 명백히 종교적·인종적 기준 또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기준에 의해 민족을 정의하고자 하는 이들과는 다른 그룹을 명백히 배척 혹은 주변화시킨다). 구성된 간의 관계로서, 어떤 시점에 민족적 '자아'는 '타자'에 의해 정의된다.¹⁵⁾

앞에서 언급한 민족주의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래의 학계는 단일한 민족으로 구성된 민족-국가의 역사가 '역사적 고안물'이라는 인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민족적 정체성 역시 단일하고 고정된 선형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두아라 역시 "아이덴티티가 모종의 사회적·문화적 표상과 동일시되는 선형적·원초적(primordial) 자아를 의미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표하며 아이덴티티는 "여러 관련된 표상에서 만들어진 주관적인 위치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즉, "자아는 원초적으로, 또는 단일하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때로는 충돌하는 표상들의 네트워크"라 할 수 있으며, 민족주의는 "민족에 대한 상이한 표상들끼리 경쟁하

15) 프라센지트 두아라 지음, 문명기·손승희 옮김,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근대 중국의 새로운 해석》, 삼인, 2004, 39쪽.

고 협상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¹⁶⁾

민족과 민족주의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에 관한 두아라의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진링의 13소녀》를 분석해 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설 속 성당이라는 공간은 성당의 담장을 기준으로 하여 성당 외부의 공간—일체의 폭압이 만연한 전쟁 공간—과 성당 내부의 공간—전쟁의 참혹함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분리된다. 그리고 이 성당 내부의 인물들은 일체를 배척하고 타자화하며 동질감을 지닌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다. 이 내부의 공동체는 크게 4개의 이질적 집단—신부, 윌슨복음여자학교의 여학생들, 군인들, 그리고 기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인물들은 성당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융합하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우선 잉글먼(英格曼)과 밥 아도나르도(法比·阿多那多) 두 신부들을 살펴보자. 잉글먼 신부는 이 성당과 윌슨여자학교의 여학생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다. 작가는 잉글먼 신부에게 강한 종교적 색채를 부여한다. 잉글먼 신부는 “고상하고 침착한 품격(優雅淡定的風度)”과 뛰어난 “말솜씨와 지식(口才和知識)”¹⁷⁾을 지닌 60세 정도의 지긋한 나이의 노신부다. 그는 감정을 절제할 줄 알며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신부와 밥의 관계는 줄곧 처음 만났을 때의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하며 더 이상 친밀해지지 않았다. 잉글먼 신부를 옆집 이웃으로 만난다면 그의 첫인사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라는 친절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인사일 것이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웃으로 살아도 그의 인사는 여전히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에서 머무를 것이다. 그는 정이 깊어지지도 말라버리지도 않게 친숙함을 응고시킬 줄 알았다.¹⁸⁾

16) 두아라, 위의 책, 27-28쪽.

17) 엔거링, 《진링의 13소녀》, 91쪽. 嚴歌峇, 《金陵十三釵》, 第53頁.

18) “神甫跟他的關係一直完好地保持在初次見面的狀態，沒有增進一絲親密，英格曼神甫假如是你的隔壁鄰居，他會在頭次見面時親切真誠地跟你說：“認識你真好！”但幾十年鄰居做下來，他也還是“認識你真好！”他可以讓熟識感凝固，讓情誼不生長也不死。”엔거링, 《진링의 13소녀》, 92쪽. 嚴歌峇, 《金陵十三釵》, 第54頁.

잉글먼 신부의 합리적이며 진중한 인품, 그리고 감성보다 이성에 기대는 모습은 신부라는 종교적 신분과 서양인이라는 인종적 신분에 의해 더욱 힘을 얻는다. 잉글먼 신부의 이러한 종교적·인종적·이성적인 면모는 성당 외부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비합리성에 반대되는 합리적 요소로 기능하게 된다. 이로써 독자들은 성당 내부의 실질적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이 잉글먼 신부의 모습을 보며 성당 내부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출하길 기원하게 되고, 잉글먼 신부가 구축한 성당 내의 새로운 권력 질서를 수긍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잉글먼 신부의 권력이 의지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그가 서양인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은 서양의 힘을 빌려 일제의 폭압을 견뎌내리라 예상하게 된다. 그리고 신부라는 신분은 잉글먼 신부가 종교적 인류애로 월슨복음학교의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군인들, 그리고 신분이 비천한 기녀들까지도 구출하길 기대한다. 성당 내부의 공간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자화 시키며 잉글먼 신부에 의해 구축된 권력 질서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공간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이 권력 질서는 신부의 인종적·종교적 요소에 기대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질서가 동양/서양의 이원론적인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진령의 13소녀》에서 잉글먼 신부는 난징대학살이라는 일본의 야만적 행위(惡)에 대항하는 정의(善)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그가 상징하는 정의와 보호자로서의 능력은 '서양인'이라는 인종적 배경에 따른 이성·합리성·그리고 서양 제국주의의 권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 명의 서양인 신부인 밥 아도나르도 신부의 존재는 잉글먼 신부의 이러한 특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든다. 아도나르도 신부는 중국에서 나고 자란 서양인으로, 외모만 서양인일 뿐 그의 정체성은 사실 구수한 양저우(楊州) 사투리를 구사하는 '중국 농부'라 할 수 있다. 그는 스스로 평생 미국인일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¹⁹⁾ 일상생활에서도 아도나르도 신부는 서양인들이 따

19) 밥 아도나르도 신부는 미국으로 건너가 자신의 친척들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친척들과 모두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밥의 두피는 온통 핏물 자국이였다. 그는 긴장하고 불안하면 머리 전체에 개미가 기어오르는 것처럼 두피가 간지러웠다. 그때 밥은 자신이 미국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미국 친척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는 것은 가

시는 와인이나 브랜디, 위스키 대신 중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바이주(白酒)를 즐긴다. 특히 소설 곳곳에서 아도나르도 신부는 잉글먼 신부와 다른 태도를 보인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잉글먼 신부와는 달리 아도나르도 신부는 불의 앞에서 분노하고, 또 전란으로 인해 성당으로 피신온 자오위모의 아름다운 자태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한다. 중국인 부상병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쫓기며 다급하게 성당의 대문을 두드릴 때, 잉글먼 신부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문을 굳게 걸어 잠그지만 아도나르도 신부는 잉글먼 신부의 손에서 열쇠를 빼앗아 그들을 성당 안으로 들인다. 이러한 행동이 자기 자신과 성당 안에 있는 모두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다. 이러한 일련의 묘사를 통해 독자들은 잉글먼 신부가 표상하고 있는 ‘합리성’에 의문을 표하게 된다. 즉, 잉글먼 신부는 ‘이성적’이며 ‘합리적’이지만 아도나르도 신부의 존재로 인해 냉철하고 인정이 부족한 면모가 부각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도나르도 신부의 이러한 감성적이지만 온정이 넘치는 면모는 그의 알맹이가 ‘중국인’이기 때문이라는 점 역시 은연중에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다이타오(戴濤)라는 제3자의 등장으로 잉글먼 신부와 아도나르도 신부의 관계는 다시 변화하게 된다. 다이타오는 중국인 소령(少校)으로 전란으로 부상을 입고 목숨만 겨우 부지한 채 성당으로 피신하게 된 인물이다. 다이타오 외에도 리취안유(李全有), 왕푸성(王甫生)이라는 두 명의 중국 군인이 등장하지만 다이타오는 리취안유 왕푸성과는 달리 젊고 유능한 인물로 등장한다.²⁰⁾ 외모만 서양인이고 알맹이는 중국인인 아도나르도 신부는 잉글먼 신부

짜 밥이고, 진짜 밥은 마음 소개 웅크리고 있었다. 밥은 시간을 헤아리면서 이 역사적인 혈연의 대화합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他在跟他們團圓是把頭皮都抓破了；他一緊張不安頭皮就會抓滿螞蟻般的癢。這時他發現自己也做不了美國人，他覺得跟美國親戚們熱絡寒暄的是一個假法比。真法比瑟縮在內心，數著分秒盼望這場歷史性血緣大會唔盡早結束。) 엔거링, 《진령의 13소녀》, 91-92쪽. 嚴歌苓, 《金陵十三釵》, 第54頁.

- 20) “이모는 나에게 다이(戴) 성을 가진 젊은 소령을 “타고난 군인”, “이상이 있는 군인”, “이상을 위해 대충대충 살지 않고 군인이 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다이 소령은 아주 잘생겼는데, 이전 나의 상상이다. 왜냐하면 이상은 사람에게 기개를 드리우며, 기개는 단정한 용모보다도 남성미를 풍기게 하기 때문이다. (我姨媽向我形容這個姓戴的少校是“天生的軍人”，“是個有理想的軍人”，“爲了理想而不爲混飯而做軍人的。”戴少校很英俊，這是我想象的。因爲理想能給人氣質，氣質比端正的五官更能塑造出男性美。) 엔거링, 《진령의 13소녀》, 75쪽.

와 소통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아도나르도 신부와는 대조적으로 다이타오는 잉글먼 신부와 함께 다양한 주제를 두고 함께 대화를 주고받는다. 즉, 잉글먼 신부와 대등한 수준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이타오는 잉글먼 신부의 지성과 합리성이라는 요소를 공유하게 되고, 다이타오는 잉글먼 신부가 표상하고 있는 우월한 문화적 영역에 편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타오는 서양인 신부들에 의해 지배되는 성당이라는 권력 질서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타자화된다. 난징대학살의 원인을 무책임하게 퇴각한 중국 군인들에게서 찾는 아도나르도 신부의 말²¹⁾에, 다이타오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다이타오의 손은 벌써 도자기 찻주전자를 쥐고 있었다. 크게 벌린 손아귀와 네 손가락은 짐승의 발톱이 되어 있었다. 수류탄이 없으면 이걸로 뺨는 말마다 함부로 지껄이는 서양놈을 없애버리겠다. 그는 밥과 불과 1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달려들어 살짝 벗어난 저 이마를 박살내고 자기가 중국인들보다 잘났다고 착각하는 저 툭 튀어나온 코와 쑥 들어간 눈이 달린 잘난 얼굴 뒤통수 뇌 속에 들어 있는 붉은 거머 흰 것들은 모조리 쏘아내게 해 줄 테다. 중국이 당한 100여 년간의 치욕도 이 서양놈들과 밀접한 상관이 있지만, 저들도 중국에서 별 다른 좋은 일들을 한 적이 없다.²²⁾

嚴歌苓, 《金陵十三釵》, 第43頁.

- 21) 이 말을 내뱉으며 아도나르도 신부는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 “35년 동안 밥 아도나르도는 지금 이 순간처럼 자신을 완벽하게 미국식으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처럼 분명하게 중국인들과 거리를 둔 적도 없었다.(這三十五年中, 法比·阿多那多從來沒像此刻一樣感覺自己如此純粹地美國, 如此不含模糊地和中國人拉開距離.)” 엔거링, 《진령의 13소녀》, 209쪽. 嚴歌苓, 《金陵十三釵》, 第135頁. 이러한 대목을 통해 아도나르도 신부가 미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독특한 존재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서양인 신부이지만 ‘중국 농부’의 면모를 보일 때가 많다. 이 때문에 아도나르도 신부의 이중적 정체성은 잉글먼 신부가 상징하는 문화적 우월성과 다이타오가 상징하는 중국의 역사적 혹은 인종적 열등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 22) “戴濤的手已經握在瓷茶缸上, 虎口張大, 和四指形成一只堅硬的瓜子. 沒有手雷, 就用它消滅一個滿口雌黃的西洋鬼子吧. 他和法比只隔一米多距離, 撲上去, 把那微禿的腦門砸開, 讓他凸鼻凹眼的面孔後面那自認為高中國人一等的腦筋紅的白的全流出來. 中國一百多年的屈辱, 跟這些西洋鬼子密切相關, 他們和日本鬼子一樣不拿中國人當人. 他們在中國沒幹過什麼好事.” 엔거링, 《진령의 13소녀》, 209쪽. 嚴歌苓, 《金陵十三釵》, 作家出版社, 2011, 第135頁.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의 언어와 관습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아도나르도 신부는 잉글먼 신부와는 달리 중국의 민족적 정체성에 더욱 가까운 듯 보인다. 이 때문에 잉글먼 신부와 아도나르도 신부의 관계는 이성/감성, 서양인/중국인(문화적이며 관습적인 차원에서)의 이분법적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러나 제3의 존재인 다이타오의 존재로 인해 다시금 잉글먼 신부와 아도나르도 신부는 인종적으로 '서양인'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이며 중국인이 아닌, 중국인을 이해할 수 없는 분류로 타자화 된다. 난징대학살을 비롯한 중국의 역사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중국인뿐이라는 논리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4. 민족의 문화적 재현물로서의 '순수한' 여성

이처럼 은연중에 정당화되고 있는 잉글먼 신부의 권력 질서는 《진링의 13소녀》에 등장하는 여성들—여학생들과 기녀들—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진링의 13소녀》에서 엔거링이 기녀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전쟁에서 가장 비참한 희생을 치르는 것은 여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가장 비참하게 희생되는 것은 늘 여성이다. 여성은 정복자의 궁극적 전리품이다. 여성이 겪는 고통은 늘 두 배다. 더군다나 어떤 문화에서든지 간에 처녀성은 일정 정도의 성스러운 순결을 상징하고 점령자는 신성함을 짓밟지 않고선 전면적 점령을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남성들의 놀이이다. 그리고 여성에게 전쟁은 비극이다. 23)

23) “戰爭中最被悲慘的犧牲總是女性。女性是征服者的終極戰利品。女性承受的痛苦總是雙倍的。而且無論在何種文化裏，處女都象征一定程度的聖潔，而占領者不踐踏到神聖是不能算全盤占領的。這就是男性的遊戲——戰爭致於女性的悲劇。”嚴歌苓，〈悲慘而絢爛的犧牲〉，《當代（長篇小說選刊）》2011年04期，第69頁。

엔거링의 의도는 순결한 여학생들을 통해서 여성들을 농락하는 일본 군인들의 간사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었다.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녀들의 희생(강간으로 대변되는 여성의 성적 희생은 늘 처참한 죽음으로 끝난다)으로 전쟁의 무자비함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엔거링의 궁극적 목표였다. 일본 군인들이 여성들의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욕을 주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엔거링은 여학생들은 어리고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모습을, 그리고 기녀들에게서는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기녀들은 억압과 폭력에 마주한 중국인들 사이에서 또 다시 이중적으로 차별받는 이중적으로 타자로 존재하게 된다. 이는 성당 내에서 여학생들과 철저하게 분리시키려는 신부들의 노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오위모는 자신과 같은 기녀들을 “분별력도 없고 눈치도 없고 수치심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 “살아서는 인간 대접 못 받고 죽어서도 귀신 대접 못 받는, 때려도 소용없고 짓밟아도 소용없는 우리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여학생들의 단순함과 깨끗함을 위해서, 그래서 그녀들을 우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모와 같은 이들의 비천함을 필요로 하는 세상 사람들을 꾸짖”는다.²⁴⁾

그러나 소설은 자오위모라는 인물을 통해 기녀들도 양분화시킨다. 자오위모는 다른 기녀들과는 다르다. 그녀는 솔직하고 대범하며 무엇보다도 현명한 여성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성당이라는 새로운 사회 조직 안에서 기녀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동한다. 자오위모는 기녀들 중에서 잉글먼 신부와 대화가 통하는 인물로, 기녀들과 신부들, 그리고 여학생들 사이의 불화를 중재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소설에서는 그녀의 눈부신 외모와 함께 문화적으로 교양 있는 여성으로 묘사한다. 자오위모는 사서오경을 읽었고 비파, 바둑, 글, 그림에 능했다. 특히 30년대에 유행하던 잡지 《현대(現代)》로 자오위모를 이미지화 시킨 것은 주목할 만하다. 소설에 묘사된 바와 같이 《현

24) “就憑人家要忍受我們這樣的人，就憑我們不識相，不知趣，給臉不要臉。就憑我們生不如人，死不如鬼，打了白打，糟蹋了白糟蹋。”爲了使女孩兒們單純、潔淨從而使她們優越，世人必須確保玉墨等人的低賤。”엔거링, 《진링의 13소녀》, 48쪽. 嚴歌苓, 《金陵十三釵》, 第27頁.

대»지는 “현대적인 화제, 정치, 경제, 국민의 생활방식과 건강, 영화계 스타의 동향과 스캔들로 도배되어” 있었다. 《현대》지를 받쳐든 자오위모의 모습에서, 잡지의 모던함은 자오위모의 세련됨과 중첩된다. 자오위모가 다른 기녀들과 문화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면서 자오위모를 제외한 다른 기녀들은 더욱 열등한 존재로 타자화된다. 앞서 잉글먼 신부의 ‘인정’을 받은 다이타오가 자오위모와 깊은 정을 느끼게 된 것도 우연한 설정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진링의 13소녀》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요소는 위기를 타계하는 방식에 있다. 13명의 여학생들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그들 대신 기녀 13명이 여학생으로 분장하여 일본의 군관들을 위해 성가를 부르러 간다. 그리고 모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자오위모만이 살아남는다. 이 역시 “그녀의 출중한 외모와 품격” 덕분이라고 추측한다. 이 장면에서 여학생들의 순결과 기녀들의 성(性)을 통한 신체적 희생은 젠더의 문제에서 벗어나 국가적인 기획으로 확장된다. 중국 민족은 여학생들로 연상되며, 중국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재현 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일본 군인들에 의해 희생된 기녀 더우커우(豆蔻)의 사진을 통해 극대화된다.

나는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생각했다. 이 얼마나 음침하고 비열한 인간이 저지른 만행이란 말인가. 그들은 다른 민족의 여성을 침범하고 더럽혔지만, 사실 그 민족의 존엄성을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이러한 사진을 전리품으로 삼은 것은 능욕을 당한 민족의 영혼을 깊이 상처주기 위한 것이다. 나는 그 후로도 자주 생각했다. 이렇게 깊은 영혼의 상처는 몇 세기가 지나야 치유될 수 있을까? 몇 대가 지나야 사람들 뺨속 깊이 아로새겨진 기억들이 희미해질 수 있을까?²⁵⁾

이 지점에서 여성의 순결은 국가적 기획과 결부되게 된다. 즉, 여학생들의

25) “我在看到這張照片時想，這是多麼陰暗下流的人幹的事。他們進犯和辱沒另一個民族的女性，其實奸淫的是那個民族的尊嚴。他們把這樣的照片作為戰利品，是爲了深深刺傷那個被羞辱的民族的心靈。我自此之後常在想，這樣深的心靈傷害，需要幾個世紀來療養？需要多少代人的刻骨銘心的記憶而最終達到淡忘？” 엔거링, 《진링의 13소녀》, 225쪽. 嚴歌苓, 《金陵十三釵》, 第146頁.

순결을 지키는 것은 결국 중국의 민족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성(《진링의 13소녀》에서는 여학생들의 순결과 희생되는 기녀들의 성)을 수호하기 위한 민족주의적 분노와 연대가 형성되고, 독자들은 이 분노와 연대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것이다.²⁶⁾

이는 전쟁에서 가장 비참하게 희생되는 여성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을 강조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 장치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더우쿠우의 죽음, 여학생들을 노리는 일본 소좌의 탐욕스러운 모습, 기녀들의 자발적 희생에서 민족적 감정은 고조된다. 그러나 이 장면은 이상적인 국가, 민족을 ‘순결하고 어린 여성’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여성들의 주체성은 박탈당한 채, 오로지 순결성으로만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소설 말미에 여학생들은 보호의 대상이 되고 기녀들은 희생의 주체로 그려지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설 내에서 기녀와 여학생들은 철저히 계층화된다. 그리고 기녀들의 모습은 환풍구를 통해 기녀들을 바라보는 수취안의 시선을 통해 묘사된다. 기녀들은 수취안의 관음증적 시선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수취안은 기녀들에게 “화냥년”, “더러운 매춘부”라 부르며 그들을 비하한다. 겉으로 보기에 기녀들을 향한 수취안의 비하는 일면 정당화되는 듯 보인다. 앞서 위모가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에서 기녀들은 비천한 계층으로 인식되며 그녀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여학생들의 단순함과 깨끗함은 우월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수취안의 이러한 분노에 사무친 비하가 기녀들을 향해 묘한 호기심과 질투심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수취안은 “성당의 담장 밖에서 불을 지르고 노략질하는 일본 병사들은 적”이었지만, 그들은 ‘추상적인 적’에 불과하다고 고백한다. 오히려 “지하창고에 있는 화려한 이 기녀들이 수취안에게 구체적이고 아주 생생하게 와 닿는 악”으로 다가왔다. 수취안의 부모가 난징을 떠나 미국으로 간 것도 자오위모와 같은 ‘짜구려 천 것’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26) 이 분석은 “임호준, <국가로서의 여성: 혁명 후 쿠바 영화에서의 페미니즘과 민족주의>,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11집, 2000”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위한 것이며, 그리고 29세의 소령 다이타오에게 느끼는 연정을 빼앗아 간 것도 자오위모 때문이라고 느꼈다. 수취안의 일방적인 비난을 듣던 기녀들은 수취안에게 일본 군인들이 귀천을 가리지 않고 여성들을 강간한다고 반박한다. 이 대목에서 수취안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긴다.

수취안은 생각했다. 애초에 강간 그 자체로도 무섭지만, 강간자들 앞에서 여자들은 귀천 없이 모두 똑같다는 것이야말로 공포다. 강간자들에게는 치욕을 아는 사람이나 치욕을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다. 가장 성스럽고 순결한 여성이나 가장 더러운 여자의 비밀스러운 곳이 똑같이 동일시되고 같은 형벌을 받는다.²⁷⁾

자오위모를 비롯한 기녀들은 수치를 모르는 순결하지 못한 여성으로 분류된다. 이는 여학생들과 기녀들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잉글먼 신부의 행위와도 일맥상통한다. 즉, 성당 내 공동체에서 기녀들은 지속적으로 배척당한다. 기녀들은 아도나르도 신부와 용감하고 올곧은 성품의 다이타오 소령을 유혹시키며 잉글먼 신부가 수립한 권력 질서를 교란시키는 존재로 등장한다. 여학생들의 존재는 기녀들의 천함을 부각시키며 그들을 타자화시키는데, 이 때 '성적 문란함'은 여학생들과 기녀들을 구별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문화적 우월성을 잉글먼 신부와 공유하고 있는 자오위모를 제외한 나머지 기녀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들은 "망국의 설움을 알지 못하는(不知亡國恨)" 존재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희생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다. 오직 스스로를 '희생'해야지만 성당 내의 구성원으로 호명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27) “書娟想，原來恐怖不止於強暴本身，而在於強暴者面前，女人們無貴無賤，一律平等。對於強暴者，知羞恥者和不知道羞恥者全是一樣：那最聖潔的和最骯髒的女性私處，都被一視同仁，同樣受刑。” 엔거링, 《진령의 13소녀》, 170쪽. 嚴歌峇, 《金陵十三釵》, 第109頁.

5. 나오며

엔저링이 '민족주의자'로서 《진링의 13소녀》를 창작했을 때, 그 의도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허구적 서사를 통해 당시 난징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 그 안에 기녀와 여학생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전쟁의 참혹함을 극대화하는 것이 저자의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소설의 서사가 많은 민족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은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성당 내의 공동체가 인종·종교·성별·연령을 초월한 각기 각층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독자들은 그 민족주의적 색채를 감지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두아라의 논의에 기대에 소설 속 구조를 분석해 봤을 때, 우리는 참혹한 전쟁의 희생자라는 공통의 신분과 일제의 폭압을 견뎌내는 공동의 경험을 공유하며 성당 내 공동체가 민족적 정체성을 구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성당 내 공동체는 신부, 군인, 기녀, 그리고 여학생들의 네 분류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잉글먼 신부의 인종적·신분적·문화적 우월성은 성당 내에서 그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아도나르도 신부는 미국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닌 존재로 등장함으로써 소설 내에서의 서양/동양, 우월/열등, 이성/비이성, 합리성/비합리성의 구도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다이타오는 힘을 잃은 중국 군인을 상징함과 동시에, 다른 중국 군인들과는 다른 우월한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중국 군인들을 또 다시 타자화시킨다. 그와 동시에 이성과 합리성을 상징하던 서양 신부들의 이성적이기만 한 냉혹한 면모와 서양 역시 중국을 침략하는 제국주의라는 면에서 일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이타오는 중국인의 종족적 정체성을 극대화시킨다. 기녀들은 순결한 여학생들에 의해 타자화된다. 이때 자오위모는 다른 기녀들과는 달리 교양과 기품을 갖춘 명기(名妓)로 등장함으로써 자오위모를 제외한 나머지 기녀들은 이중으로 타자화되기에 이른다. 이는 기

녀들이 여학생들 대신 희생당하는 장면에서 정점을 이룬다. 작품의 민족주의적 서사 속에서 순결한 여성은 곧 순결한 국가로 표상되고, 성당 내 공동체에서 줄곧 차별받던 기녀들은 자발적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승인받게 된다.

줄곧 발언권을 박탈당한 여성으로 등장하던 기녀들은 남성들의 폭력에 희생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체를 무기로 하여 일본 군인들에게 저항하였다. 잉글먼 신부의 제안이 있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녀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저항의 주체로서 등장한 여성들의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진링의 13소녀》는 민족주의적 사고방식과 이데올로기적 담론구성을 곳곳에 은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요하는 문제적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嚴歌苓, 《金陵十三釵》, 作家出版社, 2011.
- 嚴歌苓, <悲慘而絢爛的犧牲>, 《當代(長篇小說選刊)》 2011年04期.
- 베네딕트 앤더슨 지음,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2002.
- 앤서니 D. 스미스 지음, 김인중 옮김, 《족류 상징주의와 민족주의: 문화적 접근방법》, 아카넷, 2016.
- 에르네스트 르낭 지음, 신행선 옮김, 《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2.
- 장문석, 《민족주의》, 책세상, 2011.
- 프라센지트 두아라 지음, 문명기·손승희 옮김,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근대 중국의 새로운 해석》, 삼인, 2004.
- 기 영, <엔거링(嚴歌苓) 장편소설 《죄수 루엔스(陸犯焉識)》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 김인중, <민족과 민족주의 — 겐너와 스미스를 중심으로>, 《송실사학》 제26집, 2011.

- 박남용·이천주, <엔거링(嚴歌苓) 소설 <진링의 13소녀(金陵十三釵)> 속에 나타난 역사의 기억과 하위주체 연구>, 《한중언어문화연구》 제34집, 2014.
- 박남용, <엔거링(嚴歌苓)의 《죄수 루엔스(陸犯焉識)》에 나타난 역사적 트라우마와 기억의 서사>, 《세계문학비교연구》 제54집, 2016.
- 손주연, <기억과 망각의 서사: 엔거링(嚴歌苓) 소설 《방화(芳華)》가 문화대혁명을 서술하는 방식>, 《중국소설논총》 제58집, 2019.
- 임호준, <국가로서의 여성: 혁명 후 쿠바 영화에서의 페미니즘과 민족주의>,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11집, 2000.

<Abstract>

Memories of the Nanjing Massacre, Reconstructed with Nationalism:
A Study on *The Flowers of War* by Yan Geling

Son, Juyeon

Yan Geling's *The Flowers of War* is a novel published in 2011, based on true events that took place during the Nanjing Massacre in 1937. Though an article, author mentioned that as a "nationalist", she had no choice but to write *The Flowers of War*. No doubt that the author's intention was to imagine the situation in Nanjing at that time through fictional narratives, and to maximize the horrors of the war by properly placing prostitutes and schoolgirls within the narratives. However, it is problematic that the narrative of the novel develops in a way that values national identities. It is not easy for readers to sense the nationalist colors as the community within the cathedral is composed of people from different race, religion, gender and age. However,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the novel through Prasenjit Duara's perspective, we can see that the community within the cathedral share a common status as a victim of Nanjing Massacre and share identical experience of enduring Japanese

invasion. As a result a national identity is created within the community. In this respect, based on the nationalistic viewpoint, this paper explores the question of how the novel constitutes national identity through the Nanjing Massacre, and how it represents historical tragedy at the expense of women, and proceed with a more comprehensive analysis.

Key words: Yan Geling, *The Flowers of War*, Nanjing Massacre, nation, nationalism, ethnic identit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1. 31.	2020. 2. 7.	2020. 2. 20.	2020. 2. 27.	2020. 3. 31.